

# 전기차 잇단 화재, 대책없나... “배터리 과충전 말고 90%만”

현대차 이어 GM서도 화재  
GM, LG화학 배터리 장착한  
볼트EV 대상 선제적 리콜  
K-배터리 글로벌 위상 ‘비상’



GM 볼트 EV.

전기차 시대를 맞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K-배터리’의 고속질주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국내 배터리 3사(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6%에서 올해 35%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며 완성차 업체들은 대대적인 리콜에 나서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제너럴 모터스(GM)는 지난 14일 볼트EV가 화재 발생 위험으로 자발적 리콜을 시행했다. 이번 자발적 리콜은 한국 오창에서 생산된 LG화학의 고압 배터리를 장착한

2017~2019년형 볼트EV를 대상으로 하며, 완전 충전 혹은 완전 충전에 근접해 충전할 경우 잠재적인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GM은 잠재적 화재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차량 배터리 충전을 전체 충전 용량의 90퍼센트로 제

한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GM은 오는 18일 북미시장을 시작으로 배터리 소프트웨어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해당 조치를 통해 잠재적인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2017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작된 코나EV 7만7000대를 리콜 중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8일 코나

EV에 대해 국내에서 2만5564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북미 1만1137대, 유럽 3만7366대, 중국과 인도 등 기타 지역 3000여대 등 해외에서도 5만1000여대를 리콜했다.

리콜 결정 당시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의 리콜 결정을 알리며, 화재원인과 관련된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코나에 장착된 배터리 공급사 또한 LG화학이다. 삼성SDI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BMW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화재 위험성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2만 6700여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할 방침이다.

차량 화재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배터리를 너무 과하게 충전하는 일이 반복되면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이전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배터리 장착한 차량에서 잇따라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인 LG화학은 3분기 매출 7조5073억원, 영업이익 902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 분기별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SDI도 3분기에 매출 3조872억원, 영업이익 2674억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0.2%, 61.1% 증가했다.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SK이노베이션은 화학 사업 부진 등 이유로 올해 3분기 영업손실이 289억원 발생했지만, 배터리 사업은 적자폭을 대폭 축소하며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매출은 486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배, 전 분기보다 43.7%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전 분기보다 149억원 개선한 -989억원을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SK(주), 9년 연속 ‘DJSI 월드 지수’ 편입

사회적가치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  
복합기업군 최우수 기업에도 선정

SK주식회사는 ‘2020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평가’에서 9년 연속 ‘DJSI 월드 지수’ 편입과 동시에 2년 연속 복합기업군 분야 ‘인더스트리리더(최우수기업)’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복합기업군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한 것은 SK주식회사가 처음이다.

DJSI는 미국 S&P다우존스와 스위스지속가능경영평가·투자사인 로베코샘이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500여 개 상장사를 61개 산업군으로 분류, 경제적 활동·사회적 책임·환경경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수다.

복합기업은 이종산업 진출과 인수합

병 등을 통해 하나의 기업이 ICT·바이오·반도체소재 등 다양한 사업군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45개 복합기업 중 SK(주)를 비롯 지멘스, 삼성물산 등 상위 3개 기업만이 DJSI 월드지수에 편입됐다. SK(주)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비롯해 디지털 기반 DBL 비즈니스 모델 혁신 활동 등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DBL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SK(주)는 인공지능·클라우드·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SHE(안전, 보건, 환경) 서비스 ▲AI기반 사회 안전망 강화서비스 ▲청년 장애인 ICT 전문가 육성·채용 프로그램 ‘씨앗’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해 사

회적 가치 성과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앱 ‘행가래’를 통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 ▲자원 낭비 방지 ▲사회적 기부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사회적 가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SK(주)는 지난 10월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공개했다. 작년 한해 SK(주)는 ▲경제 간접 기여 성과(고용, 배당, 납세 등 기업 활동을 통한 국내 경제 간접 기여 가치) 8194억원 ▲비즈니스 사회 성과(제품 개발·생산·판매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가치) 817억원 ▲사회공헌 사회성과 82억원 등 총 9093억원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창출했다. /구서윤 기자 yun2514@

## 디지털 무역 지원하는 ‘K-스튜디오’ 개관

코트라 서울 영곡동에 문 열어  
영상 제작, 라이브커머스 등 활용

KOTRA(코트라)가 13일 서울 영곡동 본사 지하 1층에 ‘K-스튜디오’를 열었다. K-스튜디오는 이날 제3차 확대무역 전략조정회의에서 발표된 ‘무역 디지털 전환대책’ 방안 중 하나로 마련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마케팅이 보편화되면서 효과적인 상품 콘텐츠 홍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해외마케팅 분야도 텍스트를 뛰어넘어 영상을 활용한 프로모션이 요구된다. K-스튜디오는 중소·중견기업의 콘텐츠 역량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K-스튜디오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생방송 ▲해외시장 온라인 세미나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제품 홍보영상 제작 ▲AR·VR 활용 상



권평오 코트라 사장(오른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품 촬영 등 활동이 이뤄지며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무역과 온라인 마케팅 중심이 될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과 함께 K-스튜디오 활용 시범사업도 진행됐다. 코트라는 미국 아마존 소비자를 상대로 ‘프리미엄 라이브커머스 생방송’을 열고, 일본 바이어·

투자자를 대상으로는 ‘한-일 스마트시티 솔루션 파트너링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프리미엄 라이브커머스 생방송’에서는 뷰티 인플루언서 애드워드 아빌라와 윈더걸스 출신 헤림이 미국 팔로워와 소통하며 24개 K-뷰티 제품을 소개했다. 특히 방송 중 정세균 국무총리 일행이 현장을 방문하자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나타내며 1분 만에 뷰티박스가 완판됐다.

‘한-일 스마트시티 솔루션 파트너링 웹세미나’에서는 지능형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혁신기업 5개사가 NEC, NTT 등 30개 일본 바이어·투자자를 상대로 기술 피칭을 했다.

한편 K-스튜디오는 광주, 부산 등 전국에서 문을 연다. 코트라는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교육하고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돕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나담게 스튜디오.

/삼성전자

## 삼성전자 “비스포크 등 맞춤형 가전 체험하세요”

전국 퍼서 ‘나담게 스튜디오’ 운영

삼성전자가 맞춤형 가전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13일 갤러리야백화점 광교점을 시작으로 내년 1월말까지 전국 주요 백화점 20개 지점에 ‘나담게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나담게 스튜디오는 ‘비스포크’ 주방 가전과 ‘그랑데 AI’ 세탁기와 건조기, 라이프스타일TV 등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도

록 꾸며다. 삼성전자 가전 제품 통합 솔루션 ‘가전을 나담게’를 반영했다.

공간은 다양한 체험존으로 꾸며 맞춤형 가전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비스포크 키친존과 TV존, 무풍큐브와 비스포크 큐브를 놓은 큐브존 및 의류케어 존이다.

삼성전자는 현장 이벤트와 미션 수행 참가자에 한정판 굿즈를 증정하고 품목별 최대 50만원 상당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 ‘LG윙’ 더 편해진다... SW 첫 업데이트

LG윙(사진)이 폼팩터 활용 능력을 극대화한다.

LG전자는 12일부터 LG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업데이트에는 세 손가락으로 메인화면과 세컨드스크린으로 화면을 이동하는 기능을 비롯해 스윙블시 화면 전환 속도 개선, POLED 색감을 극대화하는 다크라이징 배경화면 테마 추가 등이 포함됐다. LG전자는 지난 9월 모집한 고객 체험단인 ‘LG 팬덤’ 1기 의견을 비롯해 퀵헬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 고객 목소리를 면밀히 분석해 업데이트 내용을 결정했다. 취합한 의견을 사내



고객 제안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업데이트 항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이같은 방식으로 고객 불편을 인지하고 사용 편의성까지 개선하는 사후지원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고객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 업데이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